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강명희[†](이화여자대학교)

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요약〉

최근 사회경제 분야의 급격한 변화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대학 역시 이러한 청년 취업난을 인지하여 재학생의 진로탐색과 합리적 진로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을 핵심 영향요인으로 선정하고 진로결정의 확고함을 대변하는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하여 이들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교육전략 수립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충청도 소재 A 대학과 경상도 소재 B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592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변인 간의 직·간접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각각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향상을 고려한 통합적인 촉진전략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통해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전략 고안과 실행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진로결정수준,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구조방정식

[†] 교신저자 : 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mkkang@ewha.ac.kr

I. 서 론

진로는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경험을 의미하며(Walsh & Osipow, 1994), 진로선택과 계획은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재학 과정에서 결정하는 진로의 선택은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생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김민정, 김봉환, 2007).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학 전 진로에 대한 지도 부재와 스스로의 심각한 고민 없이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는 환경으로 인해 진로결정 시기가 오면 그 과정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진성희, 성은모, 2012).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은 대학생들의 편입, 휴학, 졸업 유예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무분별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심각한 방향 상실 문제의 악순환 고리에 걸려들게 된다(이중찬, 2013). 이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재학생의 진로탐색과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지원이 중요 이슈로 주목 받고 있으며 올바른 진로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직업 선택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였느냐의 정도를 진로결정수준이라 한다(고향자, 1993). 대학생에게 진로결정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도는 개인마다 진로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확고할수록 선택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탐색하는 것은 향후 이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신정옥, 2011). 이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진로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인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조규판, 주희진, 2009).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반영한 효과적인 진로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는 개인의 심리적인 내적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인 외적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다(김영혜, 안현의, 2012;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발달 과업인 진로 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파악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또한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대학 진학 후 사회경제적 환경과 다양한 직업관의 출현과 변화로 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영향력 관계를 규명하고자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상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람직한 결

과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며(Bandura, 1986),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전략 사용이나 수행의 수준을 결정하고 학생들의 성취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상길, 2008). 이에 진로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은 다양한 의사결정 행동과 수행을 요구하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김민정, 김봉환, 2007; Hackett & Betz, 1981). 또한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들로부터 각종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받아 인간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박지원, 1985). 특히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과 정보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 진로탐색 및 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류진혜, 김태성, 1998).

이상의 선행 연구에 기초해 볼 때, 개인의 내적요인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외적요인에 해당하는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낮은 대학생은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인 불안정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 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주는 개인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학생의 특성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진로상담과 진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지도 전략 구축에서의 시사점을 얻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은 적합한가? 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직·간접효과가 존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이란 개인의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위하여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준비로 직업세계에서 지속적인 성공과 안정을 취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Lopez & Ann-Yi, 2006). 진로결정은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이 진로 선택 및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진로결정수준이란 진로선택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앞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 정도,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이 구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이상길, 2008). 대학에서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의 전공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 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이다(신소영, 권성연, 2014). 즉,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직업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정으로 졸업 후 자신이 종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직업분야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정옥, 2011).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은 자기효능감, 자아정체성,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진로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인 종속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고향자, 1993)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라 판단된다(최규환, 2013).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으로 정하고, 이 수준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직업을 선택한 확신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2. 지각된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Preventive Psychology)이 대두되면서 관심받기 시작하였다(류진숙, 2012; 박미경 외, 2008).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은 자원을 객관적으로 지각하는지 혹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지에 따라 실제적인 사회적지지와 지각된 사회적지지로 구분된다. 실제적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을 말하고,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박지원, 1985).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지지보다 행동을 예측하는데 더 중요하며, 실제로 사회적지지를 받았더라도 지각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송종용, 1988; 조명실, 최경숙, 2007; Cohen & Willis, 198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적요인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해 주고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감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향상시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류진숙, 2012; 박지원, 1985). 또한 필요한 조언과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를 대처하고 변화의 적응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다. 진로 분야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 준비 및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Betz, 1989).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나타났으며(문승태, 박미하, 2013; 신정옥, 2011; 이정규, 2006),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이 더 적극적이고 진로결정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경 외, 2008; 송현심, 홍혜영, 2010). 이러한 점은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진로수행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관점에서 대학생이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 친구, 선배, 교수 등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하는 특정 행동이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할 것이라는 신념과 기대하는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86).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신념 수준이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행동의 수준을 결정한다(김아영, 199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행동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낮은 사람은 쉽게 포기한다(김혜라, 2013).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특수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과제나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며 자신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그 과제나 상황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패하더라도 좌절감이 적으며 긍정적으로 귀인하여 빠른 회복력을 지닌다(신경자, 2009). 진로 분야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 진로탐색활동 등의 다양한 변인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사고,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었으며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Flum & Blustein, 2000; Hackett & Campbell, 1987; Loke & Latham, 1990), 자기효능감이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다양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4.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Lent와 Brown(2008)의 연구에서는 환경맥락적 요인인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피드백 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ent et al.(2001)도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일과 김기원(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김수리, 이재창, 2007; 문승태, 박미하, 2013; 송현심, 홍혜영, 2010; 조명실, 최경숙, 2007). 즉, 부모, 교수, 친구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사회적지지를 받느냐는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해란, 2010). 이처럼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발달 기회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 내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므로(Lent, Brown, & Hackett, 1996)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Ek, Ek와 Mackey(2005)은 가족과 동료의 충분한 사회적지지가 자신의 전공 분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옥(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김경주, 김기홍, 박경선(2012)은 독립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유영란과 강명희(2014)는 공학계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인영향력이 진로태도성숙의 향상에 직접효과가 있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역할모델의 존재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탐색에 더 적극적이고 진로결정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경 외, 2008; 송현심, 홍혜영, 2010).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Schulthesis, Kress, Manzi, & Classcoak, 2001), 문화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개인이 중요하게 지각되는 주변인인 부모, 친구, 선배, 교수의 역할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다(하영숙, 염동문, 201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Erdwins, Buffardi, Casper와 O'Brien(2001)은 여성의 역할 긴장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여성의 진로와 가정의 갈등을 설명하는데 큰 예측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길(2008)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소희(2011)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해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확신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학생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오석영(201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해경, 김혜원, 김은아(201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동기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언자를 찾고 진로정보를 구하며 학위를 마치기 위해 노력한다(김아영, 1997; Lent, Brown, & Hackett, 2000). 이에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수준의 예측변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 A 대학과 경상북도 소재 B 대학에서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600부의 자료 중 불성실 응답이나 무응답이 포함된 자료 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9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182명(30.7%), 여학생은 410명(69.3%)이고, 1학년은 205명(34.6%), 2학년은 155명(26.2%), 3학년은 130명(22.0%), 4학년은 102명(17.2%)이었다.

2. 연구도구

가. 지각된 사회적지지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박지원(1985)의 도구를 기반으로 김연수(1995)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4개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연구대상이 평소 주위사람(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에게 느끼는 생각에 관한 문항으로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느낌의 정도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변인의 Cronbach's α 는 .79 ~ .85로 나타났고, 전체 Cronbach's α 는 .94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1982)이 개발한 척도를 김아영, 차정은(1996)이 타당화하고, 김아영(1997)이 수정한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계획성, 과제난이도 선호의 4개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변인의 Cronbach's α 는 .69 ~ .82로 나타났고, 전체 Cronbach's α 는 .88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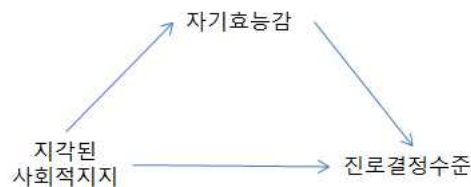
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Carney와 Barak(1976)이 개발한 Career Decision Scale을 고향자(1993)가 변안한 진로결정수준 도구를 사용하였다. 확신성, 미결정성의 2개 요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이 중 진로

미결정 수준을 측정하는 16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응답값을 역산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변인의 Cronbach's α 는 .74 ~ .88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수준 전체 Cronbach's α 는 .92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여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설문을 실시할 지방 소재 2개 대학을 섭외하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학기 2~4차에 걸쳐 수집하였고, 수집된 응답자료 중 불성실 응답 및 결측치가 있는 자료는 제거한 후 최종 표본을 확정하였다. 최종 자료는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으로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분석 단계는 모형의 상정,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의 과정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모형의 상정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변인들을 설정하였다. SPSS 18.0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고, 각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과 측정문항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후 AMOS 20.0을 활용하여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변인 간의 직접,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bootstrapping analysis)을 통해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수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판단은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을 확인하여 귀무가설을 지지하는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χ^2 통계량은 다변량정규성, 표본의 크기, 관찰변수의 개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본 연구에서는 χ^2 통계량 이외에 절대적합지수 중에서 RMSEA,

CFI, TLI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RMSEA의 참고기준값을 .08 이하, CFI와 TLI의 참고기준값을 .9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관찰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전체평균은 3.77(표준편차 .48), 4개 관찰변수의 평균은 3.64~3.83(표준편차 .52~.54)으로, 자기효능감은 전체평균은 3.15(표준편차 .45), 4개 관찰변수의 평균은 2.73~3.50(표준편차 .47~.71)으로, 진로결정수준은 전체평균은 2.68(표준편차 .52), 2개 관찰변수의 평균은 2.64~2.70(표준편차 .52~.66)으로 나타났다. 각 관찰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의 왜도가 절댓값 3 미만, 첨도가 절댓값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변량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포함될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 관찰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592)

잠재변인	관찰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잠재변인평균(SD)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서적지지	3.83	.54	-.60	1.42	3.77 (.48)
	정보적지지	3.78	.52	-.35	1.15	
	물질적지지	3.64	.54	-.26	.84	
	평가적지지	3.83	.52	-.40	.98	
자기 효능감	자신감	2.99	.71	-.10	-.22	3.15 (.45)
	자기조절효능감	3.50	.47	.10	.25	
	계획성	3.37	.65	-.18	.06	
진로결정 수준	과제난이도 선호	2.73	.70	.03	-.01	2.68 (.52)
	확신성	2.64	.66	-.10	-.08	
	미결정성	2.70	.52	.34	-.15	

〈표 2〉 관찰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n = 592)

잠재변인	관찰 변수	관찰변수									
		1	2	3	4	5	6	7	8	9	10
지각된 사회적지지	1	1									
	2	.80*	1								
	3	.80*	.76*	1							
	4	.81*	.75*	.76*	1						
자기 효능감	5	.29*	.22*	.26*	.32*	1					
	6	.37*	.38*	.36*	.43*	.42*	1				
	7	.21*	.22*	.19*	.24*	.19*	.51*	1			
	8	.10*	.17*	.09*	.14*	.34*	.35*	.25*	1		
진로결정 수준	9	.18*	.21*	.21*	.20*	.12*	.22*	.28*	.17*	1	
	10	.22*	.20*	.20*	.24*	.27*	.20*	.20*	.19*	.56*	1

1. 정서적지지, 2. 정보적지지, 3. 물질적지지, 4. 평가적지지, 5. 자신감, 6. 자기조절효능감, 7. 계획성, 8. 과제난이도 선호, 9. 확신성, 10. 미결정성

$p < .05$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적합지수에 의한 판단과 구인타당도에 대한 확인으로 검증하였다.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인인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변인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수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n = 592)

	χ	df	p	RMSEA (90% 신뢰구간)	CFI	TLI
측정모형	138.005	32	.000	.075 (.062 ~ .088)	.963	.948
참고기준	-	-	.05 이상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절대적합도지수인 $\chi^2(32) = 138.005, p < .05$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 크기, 다변량정규성, 관찰변수의 개수 등 여러 원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는 χ^2 통계량 검증과 다른 적합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므로(Hai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RMSEA와 CFI, TLI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RMSEA 값은 참고기준값인 .08 이하인 .075(90% 신뢰구간 .062 ~ .088)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표인 CFI 값은 .963(참고기준값 .90 이상), TLI 값도 .948(참고기준값 .90 이상)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분석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변인들의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의 확인은 요인적재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통해 가능하다(배병렬, 2011; Hair et al., 2009).

〈표 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n = 592)

잠재변인	관찰변수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화된 요인계수()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AVE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정서적지지	1.07*	.92	.03	34.04	.99	.99
	→ 정보적지지	.99*	.87	.03	30.23		
	→ 물질적지지	1.03*	.88	.03	30.62		
	→ 평가적지지	1.00	.88				
자기 효능감	→ 자신감	1.18*	.50	.15	8.11	.95	.99
	→ 자기조절효능감	1.30*	.84	.14	9.26		
	→ 계획성	1.21*	.57	.14	8.07		
	→ 과제난이도 선호	1.00	.44				
진로결정 수준	→ 확신성	1.20*	.73	.16	7.60	.78	.87
	→ 미결정성	1.00	.77				

* $p < .05$

먼저 각 관찰변수가 잠재변인을 대신하는데 유의한지를 판단하고자 각 관찰변수의 요인적재치를 확인하였다. <표 4>와 같이 관찰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표준화계수의 C.R. (Critical Ratio) 값을 확인한 결과, C.R. 값이 모두 1.96 이상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찰변수의 표준화 요인계수가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Hair et al., 2009)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포함된 모든 관찰변수의 표준화 요인계수는 과제난이도 선호(.44)를 제외하고는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난이도 선호도 .50에 근접하여 요인적재치 확인에 의한 측정모형의 구인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잠재변인별 산출된 개념신뢰도는 모든 변인의 값이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측정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적합한 개념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잠재변인을 통해 관찰변수의 분산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잠재변인이 모두 .50을 넘어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잠재변인의 AVE 및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의 제공

잠재변인	1	2	3
1. 지각된 사회적지지	.99 [†]	.14	.06
2. 자기효능감	.37	.99 [†]	.11
3. 진로결정수준	.25	.33	.87 [†]

† 대각선: 평균분산추출지수(AVE), 대각선 하단: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대각선 상단: 상관계수의 제공

판별타당도는 특정 잠재변인이 다른 잠재변인과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구인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판별타당도는 각 요인 간에 구한 AVE와 상관계수의 제공을 비교하여 AVE가 상관계수의 제공보다 클 때 두 변인은 변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한다(Fornell & Lacker, 1981; Hai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표 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각 변인 간에 상관계수의 제공과 평균분산추출지수를 비교한 결과, 분산추출지수가 상관계수의 제공보다 커서 잠재변인들 사이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적합성을 나타내는 절대적 합도지수인 $\chi^2(32) = 138.005, p < .05$ 로 유의수준 .05에 유의하게 나타나 구조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RMSEA 값은 참고기준 값인 .08보다 낮은 .075(90% 신뢰구간 .062 ~ .088)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표인 CFI 값은 .963(참고기준 값 .90 이상), TLI 값도 .948(참고기준 값 .90 이상)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상정한 구조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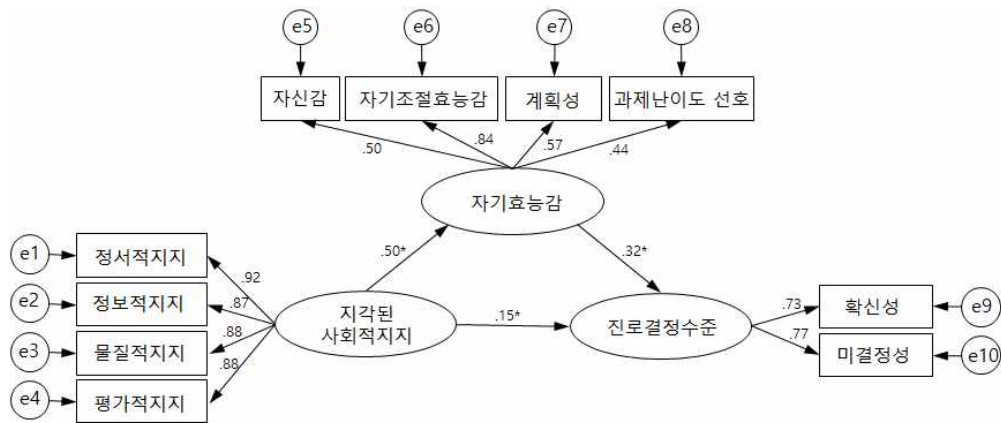
		df	p	RMSEA (90% 신뢰구간)	CFI	TLI
구조모형	138.005	32	.000	.075 (.062 ~ .088)	.963	.948
참고기준	-	-	.05 이상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또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형에 포함된 변인 간의 모든 경로의 영향력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제안된 구조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고, 각 변인 간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조모형의 추정된 경로계수 및 유의도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화 요인계수(β)	표준오차	C.R.
자기효능감 ← 지각된 사회적지지	.36*	.50	.04	8.23
진로결정수준 ← 지각된 사회적지지	.13*	.15	.05	2.63
진로결정수준 ← 자기효능감	.37*	.32	.08	4.60

* $p < .05$



* $p < .05$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경로계수

4.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 분석

다음은 구조모형에 포함된 자기효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beta = .50, p < .05$)에,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수준($\beta = .15, p < .05$)에,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beta = .32, p < .05$)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결정수준($\beta = .16, p < .05$)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총 효과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간접효과 없이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만 있으며,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beta = .50, p < .05$)는 유의하고, 총효과($\beta = .50, p < .05$)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을 24.5%($\beta = .2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직접효과($\beta = .15, p < .05$),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beta = .16, p < .05$)는 유의하고, 총효과($\beta = .31,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진로결정수준을 17.6%($R^2 = .17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구조모형의 변인 간 직·간접효과의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요인계수	요인계수	요인계수	요인계수	요인계수	요인계수
자기효능감	← 지각된 사회적지지	.36*	.50	.00	.00	.36*	.50
진로결정수준	← 지각된 사회적지지	.13*	.15	.13*	.16	.26*	.31
	← 자기효능감	.37*	.32	.00	.00	.37*	.32
설명력()	자기효능감	24.5 %(.245)					
	진로결정수준	17.6 %(.176)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을 상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상정하고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참고기준 이상의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보였으며 구조모형도 좋은 적합도를 보임으로써 가설적 구조모형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조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 간의 모든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모형은 적합하며, 인과관계 또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박현일과 김기원(2001), Lent와 Brown(2008)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자기효능감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받으며, 주위사람들로부터 어떤 사회적지지를 받느냐는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최해란, 2010)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전공학습뿐만 아니라 직업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공동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튜터링 제도를 통해 정보의 폭을 넓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항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신정옥(2011), 유영관과 강명희(2014)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 준비 및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Betz, 1989)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위사람으로부터의 정보와 물질을 지원받고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진로결정을 하므로 교수, 선배 등 주위로부터 받는 조언이나 정보의 제공, 지원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의 진로지원관의 진로취업상담을 통한 정서적, 정보적 지지 및 취업특강, 동일 전공 선배와의 간담회 등 학생이 인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지지의 제공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계획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는 학생들의 참여 촉진과 더불어 사회적지지의 인지를 향상시켜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상길(2008), 이기학과 이학주(2000)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진로결정수준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과 자기조절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내 공모전, 역량개발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여 다양한 수준의 문제해결방법과 비구조화된 문제 제시 등을 통해 대학생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안된 연구모형의 경로에 나타난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간접효과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영숙과 염동문(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영향을 받는 진로결정수준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비슷한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직접효과 못지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학생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지지는 자기효능감 강화를 통하여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며, 자기효능감을 통해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내적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외적요인인 지각된 사회적지지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진로결정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상담은 진로결정의 과정 중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므로(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개인의 내·외적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도움과 정보는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하고, 과거 성공적인 수행경험으로 형성된 자신감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능하다는 Bandura(1977)의 이론에 근거하여 성취결과를 보상하고 인정하는 반응적 환경은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도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학은 외형적인 시스템 구축과 학생의 단순 과제수행이 아닌 과제수행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담활동과 체계적인 지원 및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선수경험과 진로역량을 진단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진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의미 있는 타인인 교수, 친구, 선배로부터 지지가 진로결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로지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은 학년, 성별 뿐만 아니라 전공, 대학 소재지역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에 따른 다집단분석으로 구체화하고 취업을 앞두고 진로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기인 고학년 혹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을 도출하여 검증할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지지 형태에 따라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대학생 주변의 지지를 받는 주체에 따라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지지 유형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

봄으로써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은 자기보고방식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지각과 실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응답이 개인별로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응답자 간 객관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같이 개인의 외적요인에 대해 외부 평가자의 관점에 의해 측정하여 객관적 정보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으므로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다양한 변인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추가하여 더욱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기여하는 핵심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들 변인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공학적 교수 학습전략을 논의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효과.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경주, 김기홍, 박경선 (2012). 도립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2), 1-25.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2), 1-19.
- 김아영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지지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영혜, 안현의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 대학생 연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4), 1-18.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417-442.
- 김혜라 (2013). 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교육지식이 유아교수의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3(2), 281-296.
- 류진숙 (201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류진혜, 김태성 (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한양대학교**, 16(1), 211-232.
- 문승태, 박미하 (201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인지된 고용가능성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79-104.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소희 (2011).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주도성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307-331.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현일, 김기원 (2001).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계명연구논단**, 19(1), 7-23.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송중용 (1988). 사회적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지지가 이중과제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경자 (2009). 수업저해아동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신소영, 권성연 (2014). 진로결정과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습성과인식의 관계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7), 167-185.
- 신정옥 (2011).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 19(2), 109-141.
- 유영란, 강명희 (2014).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2), 225-247.
- 오석영 (2012). 중학생의 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학희망계열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77-94.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상길 (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교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217-230.
-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해경, 김혜원, 김은아 (2013). 고등학생들의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443-466.
- 조규판, 주희진 (2009).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272-290.
- 조명실, 최경숙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진성희, 성은모 (2012). 고등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1(1), 1-18.
- 최규환 (2013). 사회적지지이론 및 직업가치패러다임을 적용한 관광 관련 대학생의 진로결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5(2), 5-24.
- 최해란 (2010).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간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하영숙, 염동문 (201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34, 153-18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 161-17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1), 136-14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k, E. W., Ek, E. T., & Mackay, S. D. (2005). Undergraduate experience of surgical teaching and its influence and its influence on career choice. *ANZ journal of surgery*, 75(8), 713-718.
- Erdwins, C. J., Buffardi, L. C., Casper, W. J., & O'Brien, A. S. (2001). The Relationship of Women's Role Strain to Social Support, Role Satisfaction, and Self Efficacy. *Family Relations*, 50(3), 230-23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 Flum, H., & Blustein, D. L. (2000). Rein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3), 380-404.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ckett, G., & Campbell, N. K. (1987). Task self-efficacy and task interest as a function of performance on a gender-neutral task.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2), 203-215.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6). Career development from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 373-42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483.
- Loke, E., & Latham, G. (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Lopez, F. G., & Ann-Yi, S. (2006).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in three racial/ethnic group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29-46.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Schultheiss, D. E. P., Kress, H. M., Manzi, A. J., & Glasscock, J. M. J.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2), 216-241.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Walsh, W., & Osipow, S. H. (1994). *Career counseling for wome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강명희 · 강민정 (2015)

〈Abstract〉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Myunghee Kang (Ewha Womans Univ.)

Minjeng Kang (Ewha Womans Univ.)

Recent socioeconomic change and subsequent unemployment crisis among young people make college students' career search and decision difficult and the schools urgently seek ways and strategies to resolve this issue. This study chos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s the core factors that affect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level as the dependent variable that represents firmness of career decision,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which can be used to establish strategies to effectively support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592 college students at University A in Chungcheondo and University B in Kyoungseondo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as well as appropriateness of the model; the structural model comprisi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was identified appropriate. For direct effects among the variables, significant direct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were identified.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career decision level through self-efficacy. To improve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tegrated approach reflecting both self-efficac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s important, yet social and educational strategies that can improve self-efficacy through perceived social support are needed.

Key words : career decision level,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uctural equation